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4 in A major, Op. 90 "Italian"
작곡가: Felix Mendelssohn (1809–1847)
작곡: 1830–1831년 Italy 여행 중 구상, 1833년 1–3월 Berlin에서 현존 완전본 작곡; 1834년 제 2–4악장 개작
초연: 1833년 5월 13일, London Hanover Square Rooms; Felix Mendelssohn 지휘, Philharmonic Society
구성: 4악장
조성: A장조
작품 번호: Op. 90, MWV N 16
악곡 소요 시간: 약 27–31분

IMSLP: Symphony No.4, Op.90 (Mendelssohn, Felix)

Wikipedia: Symphony No. 4 (Mendelssohn)

Felix Mendelssohn의 *Symphony No. 4 in A major, Op. 90 "Italian"*은 네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 교향곡이다 . 오늘날에는 1833년 London 초연본을 전곡의 기준으로 삼아 제 1악장 Allegro vivace, 제 2악장 Andante con moto, 제 3악장 Con moto moderato, 제 4악장 Saltarello. Presto의 순서로 연주한다. ‘Italian’이라는 이름은 Mendelssohn 자신이 사적인 편지에서 사용했지만 , 자필 총보와 초연 프로그램에는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여행에서 받은 인상이 작품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과 각 악장을 특정 풍경의 묘사로 읽는 후대의 관습을 구분해야 한다.

이 작품의 밝고 빠른 표면은 정교한 형식과 발음 위에 놓여 있다. 제 1악장은 6/8박자의 탄력 속에서 현악과 목관이 짧은 동기를 주고받고, 느린 악장은 규칙적으로 걷는 저음과 길게 이어지는 선율을 겹친다. 제 3악장은 미뉴에트의 균형을 관악 앙상블로 넓히며, 피날레는 A단조의 춤 리듬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 A장조 교향곡이
같은 으뜸음의 단조로 닫히는 결말은 전곡의 명랑함에 예상 밖의 방향을 부여한다.

판본 문제는 작품의 범위와 악장 사이의 비례를 함께 바꾼다. Mendelssohn은 초연 이듬해 제 2·3·4악장을
새로 썼지만 제 1악장을 고치지 못했다. 이른바 ‘1834년판 ’은 완성된 네 악장짜리 최종본이 아니라 1833년 제 1악장과 1834년의 세 악장을 이어 만든 현대의 공연 형태다. 1833년판은 작곡가가 직접 지휘한 유일한
완결형이고 , 1834년 자료는 더 늦은 자필 텍스트라는 권위를 지니면서도 관현악 시험과 출판 전 교정을
거치지 않았다. 어느 판본을 택하든 두 자료가 성립한 조건을 먼저 밝히는 편이 정확하다.

여행의 기억과 London의 위촉

Mendelssohn 1830 12 Rome , 1831 2 ‘Italian Symphony’ Naples . Italy . 1833 Berlin .

London Philharmonic Society . 1832 11 Mendelssohn , , 100 guineas . 2 Mendelssohn . 1833 1 , 3 13 Berlin . 4 10 , .

1833 5 13 Hanover Square Rooms Philharmonic Society . Mendelssohn , Mozart Piano Concerto in D minor, K. 466 . ‘Italian’ . 2 . *The Harmonicon* .

1834 , 1837 , 1838 1833 . Mendelssohn 1 . London .

1833 Staatsbibliothek zu Berlin Mendelssohn-Archiv `Mus. ms. autogr. F. Mendelssohn Bartholdy 27` . *Sinfonia für ganzes Orchester* , ‘No. 4’ Op. 90 . London , 1851 . Bodleian Library 1·3·4 .

1834 `Mus. ms. autogr. F. Mendelssohn Bartholdy 28` . 2 4 , , , , . Mendelssohn 1834 6 Ignaz Moscheles 2 , . 1 .

Fanny Mendelssohn Felix . 1834 .

출판 정보와 자료

Mendelssohn은 생전에 이 교향곡을 출판하지 않았다. 사후인 1851년 Julius Rietz가 1833년 자필 총보를 바탕으로 편집한 총보와 파트가 Leipzig의 Breitkopf & Härtel에서 나왔다. 총보의 판번호는 8347이다. 이 초판이 널리 보급되면서 1833년 London판이 표준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1851년 인쇄본을 '작곡가의 최종 개정판'이라고 부르면 1834년 자필 자료와 출판 경위를 모두 잘못 설명하게 된다.

현대 비평판은 두 계통을 다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Christopher Hogwood가 편집한 Bärenreiter BA 9094는 1833년 네 악장 전곡과 1834년의 제 2–4악장을 한 권에 수록한다. Thomas Schmidt-Beste가 편집한 신멘델스존전집은 1833년 완전본과 1834년 개작을 별도의 권으로 나누어 원전의 독립성을 보존한다. John Michael Cooper의 2001년 Reichert 판은 1833년 제 1악장에 1834년의 세 악장을 이어 실제 공연이 가능한 결합본을 제시한다. 지휘자는 '1833년 전곡'과 '1833/1834 결합본'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 프로그램과 파트 준비 단계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소요 시간

1833년판은 대체로 27–31분이 걸린다. 제 1악장 약 9–11분, 제 2악장 약 5–7분, 제 3악장 약 5–7분, 제 4악장 약 5–7분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제 1악장 제시부 반복이다. 반복을 생략하면 25–27분대까지 짧아질 수 있고, 반복을 지키면서 넓은 템포를 택하면 30분을 넘는다.

1834년의 세 악장은 대체로 1833년판보다 길다. John Eliot Gardiner와 Wiener Philharmoniker의 녹음에서는 1833년 제 2–4악장이 17분 27초, 1834년 개작이 20분 44초이다. Jordi Savall과 Le Concert des Nations의 두 판본 녹음도 1833년 전곡이 28분 43초, 결합본이 30분 58초이다. 이 차이는 개작으로 늘어난 구조와 연주자의 템포 선택이 함께 만든 결과이므로 고정된 증가량으로 볼 수 없다.

편성

악기군	편성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호른 2, 트럼펫 2
타악기	팀파니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편성은 2관 규모로 간결하다. 빠른 악장에서 목관은 현악 주제를 받치거나 짧은 동기를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호른과 트럼펫은 리듬과 화성의 경계를 또렷하게 만든다. 제 2악장에서는 트럼펫과 팀파니가 쉬며, 제 3악장의 중앙부에서는 두 대의 호른과 두 대의 바순이 작은 관악 합주처럼 앞에 선다. 자연금관의 조성은 악장에 따라 바뀌므로 현대식 편성표에서는 악기 수를 중심으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초연 프로그램의 전체 연주자 명단에는 그날 다른 작품에 쓰인 piccolo와 trombone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명단을 교향곡의 악보 편성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악장별 해설

I. Allegro vivace

A장조, 6/8박자이며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한다. 목관이 쉼 없이 움직이는 8분음표와 낮은 현의 pizzicato를 놓으면, 바이올린이 약박에서 솟는 제 1주제를 시작한다. 주제의 경쾌함은 빠른 속도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짧은 업비트가 다음 강박으로 향하고, 목관의 고른 음형과 저음의 박이 서로 다른 밀도로 움직이면서 6/8박자의 큰 두 박을 분명하게 만든다.

전환부를 지나면 클라리넷과 바순이 E장조의 제 2주제 영역을 연다. 제 1주제보다 음의 간격이 넓고 발음이 부드러워 목관의 색이 전면에 나온다. 제시부 끝에는 반복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스물세 마디의 연결이 있다. 이 재료는 뒤의 발전부와 관계를 맺으므로 반복을 지키면 첫 부분을 다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악장 전체의 동기 배치가 더 잘 드러난다.

발전부에서는 제시부의 두 주제 외에 새로운 단조의 fugato 성격 주제가 들어온다. 여러 성부가 차례로 주제를 이어받으며 표면의 명랑함에 긴장을 더하고, 이 새 재료는 재현부와 coda에도 남는다. 오보에가 길게 붙드는 음 위로 첫 주제가 돌아올 때, 재현부는 한순간에 경계를 긋기보다 진행 중인 대위 안에서 생겨난다. 악장 끝은 힘을 모아 A장조를 확인하지만, 그전에 서로 다른 주제와 리듬이 얽힌 과정을 충분히 들려준다.

이 악장은 빠른 음의 선명도와 긴 프레이즈를 동시에 요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Tomás Cotik은 오디션 발췌 구간을 설명하면서 쉼표에서도 박을 세분하고 *crescendo*를 *accelerando*로 바꾸지 말며, 업비트 8분음표를 지나치게 짧게 끊지 말라고 조언한다. 90–110마디에서는 개별 음을 분명히 내면서도 반마디와 한마디, 더 긴 선을 함께 느끼고, 반복음에 매달리기보다 비올라와 첼로의 주동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독주 파트의 기교를 앙상블의 대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연주 기준이다.

II. Andante con moto

D단조, 4/4박자이다. 오보에, 바순, 비올라가 차분한 선율을 내놓고, 낮은 현의 규칙적인 걸음이 그 아래를 받친다. 일정한 저음 때문에 흔히 '순례자의 행진'으로 불리지만, Mendelssohn이 붙인 표제는 아니다. 특정한 Rome의 행렬이나 여행 중 본 장면을 묘사한다고 확정하기보다, 보행 리듬과 관악 선율이 만드는 엄숙한 성격을 음악 안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첫 부분이 물러나면 클라리넷이 밝은 조성의 새 선율을 열고, 목관과 현악이 더 유연한 문장을 주고받는다. 원래의 D단조 행진이 돌아올 때에는 조성과 악기 배치가 달라져 처음의 반복처럼 들리지 않는다. 중간의 장조 구간이 D단조와 계속 교차하고, coda에서 저음의 걸음과 선율이 조용히 정리된다. 초연에서 즉시 앙코르된 악장이라는 사실은 당시 청중이 이 절제된 흐름을 작품의 중심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 준다.

1834년판은 장식음을 덜고 목관 선율과 연결을 광범위하게 다시 쓰며 악장을 확장한다. Gardiner의 녹음에서는 1833년판이 5분 38초, 1834년판이 6분 29초이다. 두 판본의 차이는 선율이 숨을 쉬는 위치와 저음의 걸음에 맞물리는 방식에서 먼저 드러난다. Fanny가 새 첫 선율에 반대한 까닭도 이 악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와 관련된다.

III. Con moto moderato

A장조, 3/4박자이다. 넓게 이어지는 현악 선율과 목관의 응답이 미뉴에트 계열의 첫 부분을 만들지만, 궁정 춤의 엄격한 장식보다 완만한 보행과 노래하는 프레이즈가 앞선다. 각 성부가 같은 선율을 두껍게 겹치기보다 짧은 응답을 보태므로, 중간 음역이 뭉치지 않아야 문장의 균형이 살아난다.

E장조의 중앙부에서는 두 대의 호른과 두 대의 바순이 짝을 이루어 멀리서 들리는 신호 같은 음형을 만든다. 현악은 가벼운 움직임으로 그 뒤를 받친다. 첫 부분이 돌아올 때에는 악보에 다시 적힌 변화가 있어 처음을
그대로 da capo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들은 선율의 악기와 연결이 달라지면서 , 악장은 대칭 속에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1834년판은 악장명을 Menuetto. Con moto grazioso로 바꾸고 각 부분의 연결을 늘린다. 중앙부의 신호 음형은 남지만 팀파니를 빼고 악기 배치를 손질해 관악의 대화가 더 가볍게 드러난다. Gardiner의 연주에서 두 판본의 시간은 6분 20초와 7분 44초로 크게 벌어진다. 이 악장에서는 ‘원본보다 느린 개정판 ’이라고
요약하기보다 , 확대된 구조와 선율 배치가 템포와 호흡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피는 편이 유용하다.

IV. Saltarello. Presto

A단조, 4/4박자이다. 셋잇단음표가 연속해서 움직이므로 복합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악보의 박자는 4/4이다. 짧게 도약하는 saltarello 리듬과 고르게 몰아가는 tarantella 계열의 움직임이 번갈아 나타나고, 현악과
관악이 작은 동기를 빠르게 교환한다. 춤의 이름은 분명하지만 특정 축제나 민속 장면을 그대로 옮긴
프로그램은 남아 있지 않다.

1833년 피날레는 소나타 형식의 요소를 사용하면서 관습적인 재현부를 두지 않는다. A단조의 첫 재료와 E 단조의 제 2주제 영역을 제시한 뒤, 발전적인 진행이 악장 후반까지 이어진다. fugato와 리듬의 결합이 점점 촘촘해지고 , coda는 장조의 승리로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A단조를 힘있게 확정한다. 전곡의 처음과 끝이 같은 으뜸음 A를 공유하면서도 장단조가 뒤집히기 때문에, 피날레의 속도와 어두운 조성이 동시에 들려야 결말의 효과가 분명해진다 .

1834년판은 속도 지시를 Allegro di molto로 바꾸고 두 번째 fugato를 더하며, 제 2주제가 A단조에서 다시 나타나는 재현의 성격을 강화한다. 악장은 더 길고 구조적인 매듭도 많아진다. 1833년판의 직선적인 추진과 1834년판의 확대된 결속 가운데 어느 쪽이 우월한지는 원전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 지휘자는 선택한 판본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마지막까지 춤의 박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 누적을 설계해야 한다.

연주와 해석의 쟁점

빠른 박과 노래하는 선

Hans von Bülow는 1840년대 Mendelssohn의 리허설과 연주를 가까이서 접한 뒤, 그가 엄격한 박을
유지하고 악보에 없는 ritardando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적혀 있는 늦춤도 작게 처리했으며 , 빠른 melisma와

장식적 음형을 감정적으로 늘이기보다 자연스러운 리듬과 고른 어택으로 연주하게 했다고 한다. 이 증언은 이 교향곡만을 위한 마디별 지시는 아니지만, 작곡가와 직접 연결된 연주 관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다.

이 원칙을 메트로놈처럼 경직된 연주로 옮길 필요는 없다. 제 1악장의 업비트, 제 2악장의 보행 저음, 피날레의 셋잇단음표가 기본 맥박을 잃지 않을 때, 긴 선율과 목관의 응답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임의의
늦춤으로 프레이즈를 매번 강조하면 춤과 행진의 성격이 약해지고, 속도만 높이면 선율과 내성의 관계가 흐려진다. 일정한 박 안에서 음형의 무게와 발음을 달리하는 것이 이 작품의 민첩함을 만드는 핵심이다.

제 1악장 반복과 판본 선택

제 1악장 제시부 반복에는 반복할 때만 들리는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 Arturo Toscanini는 1938년 방송에서는 반복을 지켰지만 1954년 NBC Symphony Orchestra 연주에서는 생략했다. 생략하면 전곡은 한층 압축되고 발전부로 곧장 향한다. 반복하면 스물세 마디의 연결과 단조 fugato의 관계가 살아나며, 재현부까지 이르는 형식의 비례가 넓어진다. 악보의 반복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 역사적 녹음의 서로 다른 선택은 전곡의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하게 해 준다.

판본을 바꾸면 반복보다 더 큰 차이가 생긴다. 1834년 개작은 제 2악장의 선율과 호흡, 제 3악장의 명칭과 규모 , 피날레의 구조를 모두 바꾼다. 세 악장이 대체로 길어지므로 1833년 제 1악장과의 비례도 달라진다.
결합본을 택할 때에는 ‘더 늦은 것이 곧 최종판 ’이라는 설명에 기대기보다 , 앞 악장만 1833년에 머물러 있다는 비대칭을 공연 해설과 리허설에서 공유해야 한다.

2관 편성의 균형

현악이 빠른 음형을 계속 연주하는 동안 목관이 주제와 연결을 맡는 대목이 많다. 현악을 두껍게 몰아붙이면 제 1악장의 클라리넷과 바순, 제 3악장 중앙부의 호른과 바순, 피날레의 관악 동기가 뒤로 물러난다. 반대로
현악을 지나치게 가볍게 만들면 선율의 긴 호흡과 A단조 피날레의 중량이 약해질 수 있다. 편성 규모 자체보다
각 성부가 선율, 박, 저음, 응답 가운데 어떤 기능을 맡는지 구별하는 일이 우선한다.

분할 바이올린은 빠른 동기 교환과 안쪽 성부를 또렷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작은 현악군과 시대악기를
쓴 연주는 자연금관과 목관의 색을 앞에 세우고, 대규모 현대 관현악은 긴 선율과 피날레의 누적에 더 넓은
폭을 줄 수 있다. 어느 편성에서도 목관의 발음과 현악의 긴 선을 양자택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녹음

Arturo Toscanini / NBC Symphony Orchestra (1954, RCA 계열)

1954년 2월 New York에서 녹음된 이 연주는 20세기 중반 Mendelssohn 연주의 기준점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1번 교향곡은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지만, 이 연주에서는 이미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명료한 구조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938년 팔레스타인 교향악단을 이끌고 Toscanini가 세운 이 단체는 이후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이어졌다.

Claudio Abbado / Berliner Philharmoniker (1995–1996, Sony)

BBC Radio 3의 2002년 *Building a Library* 기획에서 이 녹음은 이 작품의 대표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주는 템포 선택과 관현악 균형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이 녹음은 전체 4악장 구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Roger Norrington / London Classical Players (1989, EMI/Virgin)

이 음반은 *Building a Library* 기획에서 이 작품의 대표 음반으로 선정되었다. 1번 교향곡은 전체 27분 정도 길이로, 이 시기 Mendelssohn 교향곡 중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 이 녹음은 전체 4악장 구성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John Eliot Gardiner / Wiener Philharmoniker (1997–1998, Deutsche Grammophon)

1833년 런던 1834년 초 2–4악장 및 1악장 일부 초고 작업 1834년 1월 2일 런던 2번 교향곡 3번 교향곡 1833년 1번 교향곡 초고 작업 이 작품 28일

Jordi Savall / Le Concert des Nations (2022, Alia Vox)

1833년 런던 1833/1834 초고 작업 1번 교향곡 초고 작업 이 작품 28일

43초와 30분 58초이다. Gardiner가 현대 관현악의 같은 조건에서 판본을 비교한다면 , Savall은 편성 규모와 악기 음색까지 바뀐 최근의 대안을 제공한다.

Paavo Järvi / Tonhalle-Orchester Zürich (2024, Alpha Classics)
현대 교향악단의 풍부한 현악과 대향 배치 바이올린, 선명한 내성을 결합한 최근 녹음이다. 빠른 피날레에서
양쪽 바이올린의 동기 교환과 중앙의 tarantella 성격이 뚜렷하고, 선율은 속도에 묻히지 않는다. Abbado의 넓고 노래하는 현대악기 전통, Norrington의 초기 역사주의 연주와 나란히 들으면 최근 연주가 두 방향의 장점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자료

주요 자료

Bärenreiter: Christopher Hogwood 편집 BA 9094와 판본 개요
Bärenreiter: BA 9094 비평판 서문과 두 판본의 목차
Breitkopf & Härtel: 1833년판 비평보고서
Breitkopf & Härtel: 신멘델스존전집 기반 1833년 Urtext
Reichert Verlag: John Michael Cooper 편집 1833/1834 결합판
Oxford University Press: John Michael Cooper, Mendelssohn's 'Italian' Symphony Royal Philharmonic Society: Mendelssohn과 Philharmonic Society
The Harmonicon: 1833년 초연 프로그램과 동시대 평
Staatsbibliothek zu Berlin: Mendelssohn 가문 음악 자료
IMSLP: 1851년 초판과 공개 악보 자료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1833년판 악장 해설
NAfME: Tomás Cotik의 제 1악장 오디션 엑서프 해설
Deutsche Grammophon: Gardiner와 Wiener Philharmoniker의 1833/1834 녹음 BBC Radio 3: 2002년 Building a Library 비교 목록
Alia Vox: Savall과 Le Concert des Nations의 두 판본 녹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ndelssohn 교향곡 녹음 전통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4:33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4:33 UTC by 안준영